

I. 油價와 經濟

1. 油價의 국민경제적 의의

石油은 85년말 현재 全世界 에너지수요의 약 40%, 自由世界 에너지 수요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主宗 에너지源으로써 제1·2차 석유위기 이후 각 소비국들의 소비절약 및 代替에너지 개발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송부

物價와 油價管理方案



金仁浩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문의 內燃機關, 산업부문의 석유화학공업등 石油을 필요로 하는 부문의 수요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1.0~1.3% 증가세를 지속하여 혁신적인 代替에너지 개발이 없는 한 20세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主宗 에너지源으로 남아 있게될 전망이다.

<表-1> 자유세계 石油수요전망

(단위: 百萬B/D)

	1986	1987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84-2000
IEA ¹⁾	—	—	49.9	—	53.8	1.0
DR1 ²⁾	45.1	45.7	48.4	54.0	56.5	1.3

註: 1) Energy Policy & Programmes of IEA Countries 1984.

2) International Energy Bulletin, Winter 1985-1986.

한편, 국제石油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경제성장, 산업구조 및 국제금리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변동과 소비국들의 재고변동에 따라 등락을 보이며, 최근에는 산유국의 산유정책 및 정치·사회적 상황과 產油지역내의 전란등의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국제石油類價格변동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변동시점에서의 세계경제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나, 73년

1차 석유위기 및 79년 2차 석유위기를 중심으로 볼 때, 1·2차 모두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소비국의 실질경제성장을 「마이너스化」시켰으며, 물가도 10%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왔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表-2> 1·2차 石油危機時 各國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美國	英國	프랑스	西獨	日本	韓國
經濟성장률						
1974	△1.0	△1.8	3.3	0.5	0.0	8.0
1980	△0.8	△2.3	1.8	1.8	5.0	△5.7
都賣物價상승률						
1974	18.8	23.5	29.1	13.4	31.6	42.1
1980	14.2	14.0	8.8	7.5	17.8	38.9

최근 油價하락은 83년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油價하락폭 및 하락지속기간 정도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 및 교역신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原油價 하락에 힘입어 개선되는 세계 경제성장 및 물가는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0.2~0.25%포인트, △1.0~2.0%포인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石油은 總에너지소비중 46%를 차지하는 主宗에너지源으로서 산업활동 및 서민생활 뿐 아

<表-3> 原油價 변동의 세계경제 파급효과

(단위: % P)

	IMF	OECD	日本經濟企劃廳
세계경제성장률	+0.25(+0.5)		+ 0.2
石油輸入國	+0.5		
石油輸出國	△1.25-1.5		
先進國물가상승률	△1.0 (2次年度△2.0)	△ 1.5	
세계교역신장률	-	-	+ 1.0

註: 原油價 20% 하락시 1년후 파급효과 기준
*先進國 경우

나라,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그간 重化學工業중심의 성장전략추진으로 에너지多消費産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부존 에너지資源의 빈약으로 主要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 수입액중 해외수입 에너지비용이 20%나 되어 油價변동이 수출경쟁력, 국제수지, 물가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 어떤 요인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油價하락이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그림-1>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石油輸入부담을 경감시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에너지가격의 인하로 기업의 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반적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실질소득 및 이윤을 증대시켜 貯蓄餘力を 제고하고, 소비 및 투자수요의 증대는 물론, 油價하락재원의 일부를 石油事業資金과 財政收入으로 흡수하여 산업체질강화 財源으로 활용가능케 함으로써 自力成長의 잠재력을 배양하는 重要經濟變수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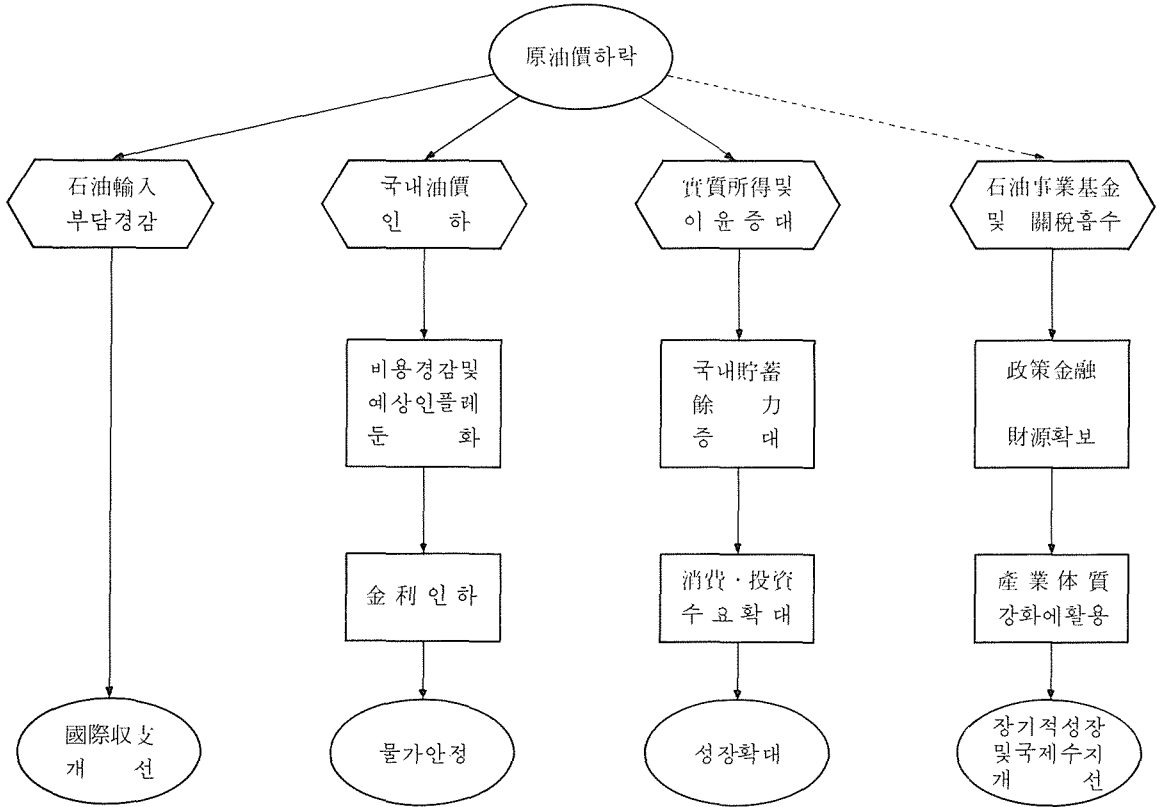
86년도중 油價하락이 국내경제에 미친 효과를 計量的으로 추정하여 보면, 경상수지는 원유도입액이 약 21.8億달러가 경감되고 세계교역신장에 따라 수출액이 약 3.2億달러가 증가되어 總 25億달러가 개선되는 반면에 수출 및 소득증대에 따라 誘發輸入이 약 9.5億달러 늘어나게 되고, 산유국의 재정악화에 따라 해외건설수입이 약 4.0億달러 줄어지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11.5億달러

<表-4> 油價하락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기여효과	비 고
經常收支(億달러)	11.5	
貿易收支	+15.5	
輸出	+ 3.2	○세계교역신장에따른 輸出증가분
輸入	-12.3	
(原油)	-21.8	
(其他)	+ 9.5	○성장에 따른 유발
貿易外收支	- 4.0	輸入分
(海外建設)	- 4.0	
物價(% P)		
都賣	△ 3.2	
消費者	△ 0.2	
經濟成長(% P)	1.3	○國際收支개선에따른 성장효과

註: 原油價가 1985對比 연평균 11\$/B 하락 전제

〈그림 - 1〉 油價하락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가 개선될 전망이다. 물가영향은 2 차에 걸친 油價인하로 도매물가는 약 3.2%포인트, 소비자물가는 약 0.2%포인트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성장률은 경상수지 개선에 따른 성장효과만을 감안할 때, 약 1.3%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表-4 참조).

2. 최근 物價動向과 요인

국내물가는 최근 5년에 걸쳐 과거의 만성적 高物價經濟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도매물가 및 소비자물가 모두 82년에 「한자리物價」에 진입한 이래, 83년부터는 「제자리物價」가 지속하였고, 올해에는 「마이너스物價」라는史上 유례없는 획기적인 물가안정으로 低物價時代가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수준은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물가가 가장 안정된 台灣, 日本등 경쟁상대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획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제原油價가 하락하고 輸入先 다변화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국내도입原油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세계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주요原資材가격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금리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외부자금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크게 경감됨으로써 비용상승압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며, 수요측면에서는 우선 먼저 정부가 제5공화국 출범이래 고통이 따르고 인기없기 마련인 물가안정정책에 최우선과제를 두고, 財政, 通貨, 換率등의 總需要 관련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였고, 家計 및 기업 역시 低物價 경제구축을 위한 고통분담과 합심노력으로 인플레이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투자를 하였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86년 10월까지의 물가동향과 요인을 보면, 〈表

〈表-5〉 각국의 物價상승률 추이 비교

(단위: 都賣物價, 年平均,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9
日 本	17.8	1.4	1.8	△ 2.2	△ 0.2	△ 1.2	△ 9.1
台 灣	21.5	7.6	△ 0.2	△ 1.2	0.5	△ 2.6	△ 3.3
美 國	14.2	9.1	2.0	1.3	2.4	△ 0.4	△ 1.2
백 시 코	24.5	24.4	56.1	107.4	70.3	53.6	N. A
韓 國	38.9	20.4	4.7	0.2	0.7	0.9	△ 1.7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表-6〉 연도별 10월 현재 物價動向

(단위: 變動率, %)

	1983		1984		1985		1986	
	比前年末	比1年前	比前年末	比1年前	比前年末	比1年前	比前年末	比1年前
都 賣 物 價	△ 1.0	△ 0.6	1.7	1.9	0.7	0.6	△ 3.7	△ 3.4
消 費 者 物 價	1.9	2.4	2.7	2.7	2.8	2.6	1.4	1.8

〈表-7〉 연도별 油價 및 都賣物價 변동률 추이

(단위: 年平均,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油 價	183.5	29.5	7.1	1.5	3.8	38.1	105.3	34.9	7.8	△5.1	△1.9	△0.4
都 賣 物 價	42.1	26.5	12.1	9.0	11.7	18.8	38.9	20.4	4.7	0.2	0.7	0.9

一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매물가는 比前年末 △ 3.7%, 比1年前 △3.4%이고, 소비자물가는 각각 1.4%, 1.8%를 기록하여 연도별 10월현재를 기준으로 볼때, 어떤 해보다도 가장 낮은 수준의 물가안정세를 示顯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안정에 있어서도 도매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비하여 크게 안정이 되어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도매물가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반면, 소비자물가에의 영향이 미미한 原油등 국제原資材가격이 하락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石油類製品가격이 도매물가중 차지하는 비중은 136.2/1000로서 국제에너지시장의 가격변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電力料金を 비롯 他工產品의 原價에도 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油價의 全産業 가격에 파

급되는 간접효과는 韓銀의 産業聯關분석에 의하면, 油價 10% 변동시 약 2.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과거 74~85년까지의 油價와 도매물가 변동 추이를 보면, 〈表-7〉에서와 같이 油價와 도매물가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連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82년부터 油價가 하락세를 보인 기간동안 도매물가는 매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油價 특히 해외原資材가격과 같은 해외부문의 물가상승요인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II. 최근의 油價動向과 대응

1. 최근의 국제原油價 동향

국제原油價는 85년말 76차 OPEC총회에서 종래의 가

〈表-8〉 최근 國際原油價 및 국내도입단가 추이

(단위: \$ / B)

	1985달	1986 1월말	3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 7 현재
英國(BRENT)	26.47	18.55	10.30	11.20	9.35	15.90	13.75	14.55	14.10
오만(OMAN)	26.70	20.40	10.85	10.10	7.90	13.10	13.75	13.15	13.40
美國(WTI)	26.33	18.85	10.40	12.80	11.15	14.45	14.80	15.25	15.20
國內導入價	26.70	26.27	17.91	11.29	10.05	8.84	10.78	—	—

격지지정책에서 시장접유를 방어정책으로 전환기로 결정
한 이래 〈表-8〉에서와 같이 연초부터 急落勢를 보여
86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86년 8월 제78
차 OPEC총회에서 회원국간에 減産에 잠정적으로 합의
함으로써 反騰勢를 보였다. 그러나 그간의 과잉공급물량
및 소비국의 비축물량의 방출등으로 油種別 4~6 \$/B
상승에 그쳤으며, 제79차 총회이후 약간의 下落勢를 보
이다가 최근 사우디 석유상의 경질과 더불어 固定價格체
제로의 복귀 움직임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어 騰落이 반
복되고 있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도입가도 국제原油價 하락에 따라 연초이래 하락
세가 지속되었으나 9월이후 反騰勢로 전환되었으며 연
말까지는 국제原油시장동향에 따라 騰落을 계속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2. 최근의 油價對策

정부는 85년말 이후 국제原油價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2, 3월중 2차에 걸쳐 22.2%에 상당하는 유
가인하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원유가 하락에 따른 세수결
합분을 보전하기 위해 관세율을 15%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86년 6월 이후에는 불안정한 국제석유시장동
향에 대비, 유가인하 및 관세율조정을 유보한 채 석유
사업기금을 조정해 나오고 있다.

그간 8차에 걸친 대응내용을 보면 〈表-9〉에서와 같
이, 국제原油價 하락에 따른 국내導入單價하락이익은 86
년 10월말 현재 총 16.79\$/B로서 油價인하 및 關稅率

〈表-9〉 國內油價 조정내용

	유가조정기준 단가(\$ / B)	유가하락이익 (\$ / B)	대 응 조 치		
			유가조정 (%)	관세율조정 (%)	석유사업기금 조정(\$ / B)
調 整 別	27.57	—	—	1	0.5
1 차(2. 20)	22.89	4.68	△ 12.93	1→5	0.5
2 차(3. 29)	18.34	4.55	△ 10.70	5→12	0.5 → 1.92
3 차(5. 31)	13.08	5.26	—	12→15	1.92→ 9.04
4 차(7. 4)	11.75	1.33	—	15	9.04→11.29
5 차(7. 29)	11.29	0.46	—	15	11.29→11.90
6 차(9. 5)	10.05	1.24	—	15	11.90→13.78
7 차(10. 4)	8.84	1.21	—	15	13.78→15.56
8 차(10. 31)	10.78	△1.94	—	15	15.56→12.53
계	—	16.79 (100%)	△ 22.2 (37.4%)	+14 (12.3%)	+ 12.03 (50.3%)

註: () 내는 대응조치별 유가하락이익 배분비율

상향조정을 위해 각각 37.4%, 17.3%를 활용하였으며, 잔여財源은 모두 石油事業基金으로 흡수·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石油類가격 조정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油種別로 상이하게 단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石油類 가격조정과 아울러 석유류가격 인하에 따라 原價절감요인이 발생된 電力요금을 포함, 交通요금 및 59개의 관련 工產品의 가격 조정을 유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물가영향은 직·간접 효과를 포함하여 都賣는 3.89%포인트, 소비자는 0.22%포인트나 되어 2차에 걸친 油價인하는 86년도중 물가안정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石油事業基金으로 조성된 財源으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비축용 原油를 추가구매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및 LNG基地건설, 都市가스 공급시설등 에너지 관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3低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 유가하락이익을 우리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 장기적 성장 및 지속적 물가안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기술향상 및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자금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Ⅲ. 油價管理方案

1. 油價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油價는 64년 국내석유제품 생산이래 줄곧 정부의 완전 통제하에 공장도 가격에서부터 소비자가격에 이르기 까지 유통단계별로 최고가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가 油價를 통제운영하고 있는 것은 油價가 국민경제의 각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유가안정 없이는 국내물가 안정은 물론 국제수지 개선 및 안정적 성장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유류제품가격 책정기준으로 精油5社의 실제 발생원가를 사용함으로써 정책결정시점과 정책효과발생 시점과의 시차가 발생,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되고, 과거 실적에 의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개별 정책주체의 소비 및 투자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치 못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대응책으로서의 유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사후발생 원가를 석유류 제품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정유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努力이 미흡하고, 산업정책적 차원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油種의 가격을 低價로 유지함으로써 油種間 가격구조의 왜곡이 초래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 수급안정 및 적정투자활동이 저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유통단계별로 최고가격을 지정함으로써 유통업체 간 공정경쟁이 제한되고 유통과정상의 낭비적 요인이 제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우기 최근 原油價의 반등에 대비, 기금을 조정함으로써 석유류제품·가격중 정부부문 비용 비중이 과대하게 되어 精油業界는 효율적인 정제 및 안정적 供給측면에서 보다는 오히려 정부부문 비용절감을 위해 基金 및 關稅의 조정폭 및 시기를 고려하여, 原油도입 및 비축규모를 조정함으로써 原油 및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저해되고, 국민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향후 改善課題 및 油價管理방안

최근 油價는 산업국의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油價변동에 따라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油價自體의 관리보다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油價管理의 기본목표는 低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고 原油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과의 조화를 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油價변동효과가 전 산업에 파급되어 수출 및 성장을 촉진하도록 탄력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둘째, 에너지源間 적정 상대가격을 유지하여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기하며, 셋째, 점진적으로 정부규제범위를 축소하여 자율적 가격기능이 회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油價變動이 수출 및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油價수준별 대응책을 마련, 關稅 및 基金을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油價變動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금융·재정 및 국제수지개선대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油價수준별로 탄력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油價政策을 운용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제1 단계로 油價가 17.5\$/B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경쟁국의 대응방안을 감안하여 油價조정을 하되 경쟁

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상실치 않는 범위내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화폭을 결정하여 물가안정을 기하고 잔여재원은 關稅등으로 흡수하여 증대되는 재정수요에 충당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2 단계로 原油가격이 17.5\$/B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關稅率이나 基金부과액을 하향조정하여 油價인상 요인을 가급적 상쇄하여 경제성장과 물가안정과의 조화를 꾀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低에너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응효과가 전산업에 파급,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原油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약과 현물시장도입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原油도입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및 민간비축을 신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精油産業 자체의 경영개선 및 비용절감노력을 강화하여 정제비 및 유통마진인상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서민생활의 보호나 산업정책상 불가피하게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부 油種價格을 조정하여 에너지源間 적정상대가격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石油수요구조의 경질화 추세에 따라 경질유 수급안정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LPG와 LNG 공급 확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나프타 및 수출 석유류 판매가를 국내 고시가격 판매 의제함에 따라 생기는 판매수익의 왜곡현상도 방지하여 사전적으로 가격구조의 적정화를 期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油價관리방향과 관련하여 국제原油價格이 안정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油價자율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油價자율화의 기본목적이 국내외적으로 정유부문 참여 산업간에 자유경쟁을 통해 精油産業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며, 수요자에 대하여는 보다 값싸고, 안정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국내산업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경제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자율성을 제고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油價 자율화방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조절기능 없이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수급균형 유지가 가능한가의 여부,

둘째, 현행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반서민보호를 위해 저가로 유지하고 있는 일부 油種價格을 시장가격에 의해 책정할 경우 산업정책등 타정책목표와 부합될 수 있는가의 여부,

셋째, 油價 자율화가 되기 위해서는 原油도입으로부터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제품 수입까지도 신규참여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精油産業의 구조 및 석유류 수요구조하에서 이의 가능성 여부.

넷째, 국제原油市場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불투명한 가운데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原油導入先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안보적 차원에서 소비자精製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행 정책과의 일관성 문제가 사전적으로 검토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자원이 따로없다
절약이 자원이다